

1999년도

국내 수의분야 10대 뉴스

대한수의사회 학술정보위원회

본회 학술홍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1999년도 국내 수의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1999년도는 특히 다사다난한 한해이었다. 대한수의사회 제 19대 임원진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해이기도 하였고, 20세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벤트와, 각종 사건 사고, 칭찬 받을 일,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다.

이에, 지나간 해의 역사를 기억해두고, 앞으로의 새 천년을 기다려 보며, 수 많은 뉴스 가운데, 가려 뽑은 국내 수의분야 10대 뉴스에 대하여 요점을 요약해 두고, 관련된 보도자료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본회 제 19대 이우재 회장 취임

(본지 35권 3호 233쪽 보도),

수의 관련법 개정

(본지 35권 2호 147~149쪽, 3호 223~225쪽, 229쪽, 4호 298~302쪽, 5호 376~384쪽, 9호

(책내 부록 18쪽) 보도,

수해지구 긴급재난 구제 활동

(본지 35권 691~692쪽, 8호 627, 631쪽 보도),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롱이' 출산

(본지 35권 3호 232쪽 보도),

손정자 여사 수의사회 명예회원 추대

(본지 35권 5호 398쪽, 35권 4호 307쪽, 5호 440~446쪽 보도),

돼지 콜레라 박멸운동 전개

(본지 35권 1호 68~70쪽, 5호 385~385쪽 398쪽, 7호 600~601쪽, 604~607쪽, 8호 697~698쪽, 699~700쪽 보도),

다이옥신 관련 대책 마련

(본지 35권 7호 587~592쪽 보도),

제2회 수의사상 대상에 문병돈 원장 수상

(본지 35권 10호 보도)

수의계의 크고 작은 별들, 회원을 잃은 안타까움이 . . .

(본지 35권 4호 317쪽, 6호 420쪽, 11호 896쪽 보도),

그 밖에, 해외 수의분야에 있어서의 핫 이슈

(Hot Issues)로는, 1999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세계수의사회 총회의 건(대한수의사회지 11월호, '다녀왔습니다' 보도)과 금세기 말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나타 난, 죽음의 괴질 '니파 바이러스'(대한수의사회지 5월호 특집 보도)를 꼽을 수 있다.

1. 본회 제 19대 이우재 회장 취임

본지 35권 3호 233쪽 보도

1999년 2월 26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본회 제 19대 회장에 이우재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총재)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부회장에 신팔순, 박근식 정영채, 임영일, 우기방, 서병조, 김진곤 회원을 선임하고, 지역이사(각 시도 및 군진지부 회장)에는 홍영선(서울), 장영규(부산), 문영명(대구), 이규석(인천), 서병조(광주), 이동열(울산), 우기방(경기), 김교승(강원), 정병웅(충북) 정태수(충남), 김진곤(경북), 이재관(경남), 이주목(전북), 윤홍석(전남), 강윤훈(제주), 강세종(군진) 회원을 인준하였다.

실행 이사로는, 이각모(정책기획위), 최상호(법제윤리위), 남치주(교육개발위), 강영배(학술홍보위), 윤용덕(방역위), 박종명(축산물위생위), 김동훈(긴급재난위), 김순재(국제협력위), 최찬영(조직강화특위), 강정부(반려동물보급특위), 임치환(동물약품특위), 모인필(정보화 추진특위) 회원 등을 선임하고, 조태순 감사와 최병인 감사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1999년 3월 12일, 제 2차 이사회에서는 사무처장에 배상호 회원의 인준을 승인하

였다. 그 동안 제 17대, 제 18대 대한수의사회 장으로 재임해온 이길재 국회의원(국민회의)은, 우리나라 수의계 업무 발전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 축산물가공처리 업무의 농림부로의 일원화, 수의과대학 교육 6년제의 실시, 수의과학회관의 건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설립을 위한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의 통폐합 수의계의 많은 일들을 하였다.

2. 수의 관련법 개정

본지 35권 2호 147쪽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147쪽 : 동물약품취급규칙증 개정(안)

148~149쪽 : 결핵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
요령 개정(안)

3호 223쪽 : 수의사법시행령증 개정령(안)

224~225쪽 : 수의사법 시행규칙증 개정
규칙(안)

229쪽 : 축산물가공처리법증 개정
법률(안)

4호 298~302쪽 : 수의사법증 개정법률(안)

306쪽 : 동물보호법 개정 예정

5호 376~377쪽 : 수의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증
개정령(안)

378~383쪽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증 개정령(안)

384쪽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증 개정령(안)

9호(책내 부록 18쪽)

수의사법 개정법률 전문
보도 등



우리 수의사회의 기본법인 수의사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수의 관련 법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3. 수해지구 긴급재난 구제 활동

본지 35권 7호 691쪽~692쪽, 8호 627, 631쪽 보도

1999년 8월 3일, 대한수의사회는 긴급재난위원회를 열고, 경기 및 강원지역 중북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해당지역의 수의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구호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근식 담당부회장, 김동훈 본회 긴급재난위원장, 양홍구, 김창수, 김휘율, 신명균, 차종상 위원과 본회 배상호 사무처장, 이원철 상무 등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호우피해 현황을 검토하고, 응급복구 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999년 8월 10일에는, 지난 8월 3일 회의 결과에 따라, 임영일 본회 부회장, 김동훈위원장, 이원철 상무 등이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북부 일원의 수의사 회원들을 방문하고, 우리회의 이우재 회장의 위로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들의 방역과 피해복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지원한 피해복구용 긴급동물약품을 경기도 수의사회 우기방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서정범)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번 홍수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동물약품을 긴급 지원하였다. 동 협

회는 동물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협회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40여개의 회원에서 2억 5천만원 어치의 동물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4.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롱이' 출산

본지 35권 3호 232쪽 보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우석 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송아지 '영롱이'의 출산을 보도하였다. 젖소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다른 젖소의 난자와 융합한 뒤, 대리모에 이식하여 출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체세포를 이용한 송아지의 출산은, 1997년 영구 스코틀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로슬린 연구소에서 성공한 바 있는 복제양 '돌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적으로는 5번째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11월 16일에는, 한국 과학기자 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과학자상'을 황교수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상식은 12월 3일에 있었다.

5. 손정자 여사 수의사회 명예회원 추대

본지 35권 5호 398쪽, 35권 7호 527, 577~580쪽, 8호 622쪽 보도

1999년 6월 29일, 대한수의사회는 제 3차 이사회에서, 대전광역시의 황수의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황성남 회원(1964년도 경북대졸, 면허번호 2,132호)의 부인인 손정자 여사를, 그의 4딸(황일하, 충남대졸, 면허번호 7100호; 황일해, 충남대졸, 면허번호 7950호; 황일류,

충남대졸, 면허번호 8571호; 황일선, 충남대졸, 면허번호 9702호)을 모두 수의사로 양육시킨 공로에 대하여, 대한수의사회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6. '사료위생 및 안전성 확보방안'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성료

본지 35권 4호 307쪽, 5호 440~446쪽 보도

1999년 5월 12일,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사료위생 및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수의정책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이 성료를 거두었다. 제 1주제로는, 강원대 수의학과 홍종해 교수의 '덴마크 및 EU의 사료 안전성 관리제도' 이었으며, 제 2주제로는, 일본과학사료협회의 기술상담역인 스스무 후쿠하라씨의 "일본의 사료 안전성 관리 현황과 전망", 제 3주제로는, 대한수의사회 신팔순 부회장의 "한국의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초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우리회 정영채 부회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한 이 정책개발 심포지움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Foss Korea가 협찬하였으며, 농림부가 후원하였다.

7. 돼지 콜레라 박멸운동 전개

본지 35권 1호 68~70쪽, 5호 385~385쪽, 398쪽, 7호 600~601쪽, 604~607쪽, 8호 697~698쪽, 699~700쪽 보도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수의 및 축산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돼지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

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등 일련의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1998년 9월 5일자, 농림부 고시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제정하여, 예방접종 실시를 강화코자하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조치 내용으로는, 돼지 콜레라 발생시 내수용 돼지도 수출용 돼지와 동등한 이동제한 등 방역규제,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농가는 300만원 과태료 처분, 7월 1일부터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100두 미만 사육농가 1만 5천호에 대하여 시군별 전문 접종 팀이 예방주사 직접 실시 등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 2일 일본국과 합의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일본 수입위생조건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돼지 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을 고시로 제정하여, 내수용 돼지에 대하여도 수출 돼지와 동등한 방역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육농가 지원사업 이외에 돼지 콜레라 100% 예방접종을 위하여, '99 예방접종 지원물량 당초 1,650만두(대상두수의 65% 수준)에 1,200만두 분을 추가 구입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국비 7억 4천만원을 각 시도에 배정하였다. 우리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이우재 회장이 공동본부장으로, 배상호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8. 다이옥신 관련 대책 마련

본지 35권 7호 587~592쪽 보도

농림부는 1999년 5월 31일, 외신 보도를 통하



여, 벨기에(Belgium) 정부가, 인체 및 동물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자국산 닭고기, 계란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EU의 집행위원회가 회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대규모의 축산물 안전 사고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조기에 확립하며, 효율적 리콜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다이옥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9. 제2회 수의사상 대상에 문병돈 원장 수상 본지 35권 10호 보도

제주에서 다호문 가축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문병돈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문 회원은, 수의사회 직업병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으며, '외길 인생 문수의사의 제주 수의 40여년 회고', 가축방역과 사양관리, 임상 상담 등 41년간 연 200회의 기고(제주신문,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남신문 등), 제주대학 수의학과 부활에 선동적 촉매 역할, 수의 분야 각계에의 협조 등으로 수의 분야의 발전에 다년간 공로를 세운 바 있다.

대한민국 수의사상은 우리 대한수의사회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사장 : 마이크 만불로메스틴)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주는 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본상의 선정기준은, 수의사 윤

리강령의 준수사항, 연구노력 및 교육홍보 활동, 임상 경력 및 대민봉사 자세, 대한수의사회 참여 및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각 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바 있는 후보 총 8명이 수의사상 후보로 추천 받은 바 있으며, 그 중에서 대상 1명과 금상 2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금상으로는 광주-전남 지부의 서병조 회원과 경기지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박종명 과장이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999년 10월 26일,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임상연수교육(대동물)에서 있었다.

10. 수의계의 크고 작은 별들, 회원을 잊은 안타까움이...

본지 35권 4호 317쪽, 6호 420쪽, 11호 896쪽 보도

대한수의사회에서는, 1999년도에 우리 수의계에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들을 잊었다. 대전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가축전염연구소의 윤지병 사장(1999년 3월 15일 작고)과, 전 서울시립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바 있는 서부갑 회원(1999년 6월 1일 작고), 정원육종시험소의 김태현 원장(1999년 10월 6일 작고) 등이다.

이에 회원들을 잊은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대한수의사회는 이 분들 이외에도 금년도에 작고하신 여러 회원들의 명복을 삼가 비는 바이다. ■